

“플랜트산업 고부가가치 위해 ESCO는 필수조건”

김정미 기자 (ps1004@naver.com)

30년 넘게 산업용 플랜트와 화공장치에서 전문적인 기술력을 과시해온 두산메카텍(주)이 기존의 사업에 에너지 절약 기술을 접목해 이 시장에서 강자 자리를 노리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폐열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열병합발전설비를 중심으로 산업용 플랜트의 에너지 절감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려 계획이다. 이 회사의 ESCO 사업 담당자인 플랜트 영업팀 서승원 과장을 만나 앞으로의 포부와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우리의 30년 플랜트사업 노하우에 관계사의 에너지설비 기술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두산메카텍(주)(대표 최승철) 서승원 과장은 앞으로 펼칠 에스코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지난 3월 ESCO에 등록된 두산메카텍(www.mecatec.com)은 1967년 두산기계(주)로 사업을 개시한 이래 산업용플랜트 설비, 화공장치, 공작기계, 강교(Steel Bridge)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해왔다.

ESCO사업은 두산메카텍 플랜트 부문의 차세대 주력사업이다. 이 회사 직원들이 현장영업을 통해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서 과장의 얘기를 들어보자.

“우리 회사 플랜트사업의 경우 초창기에는 그룹사 공사를 중심으로 하다가 10년 전부터는 90% 외부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현장을 다녀보니 산업체들의 에너지절감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은 것을 느꼈고, 앞으로 에너지절감에 대한 기술력이 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중요가 변수가 될 것으로 인지,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회사의 플랜트 부문은 석유화학, 주정 및 식품가공 등의 산업화학부문과 수질, 대기오염방지, 폐기물 등의 환경부문, 식음료 부문, 공장자동화플랜트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설계에서부터 구매관리, 제작, 설치, 시운전, 인도까지 ONE-STOP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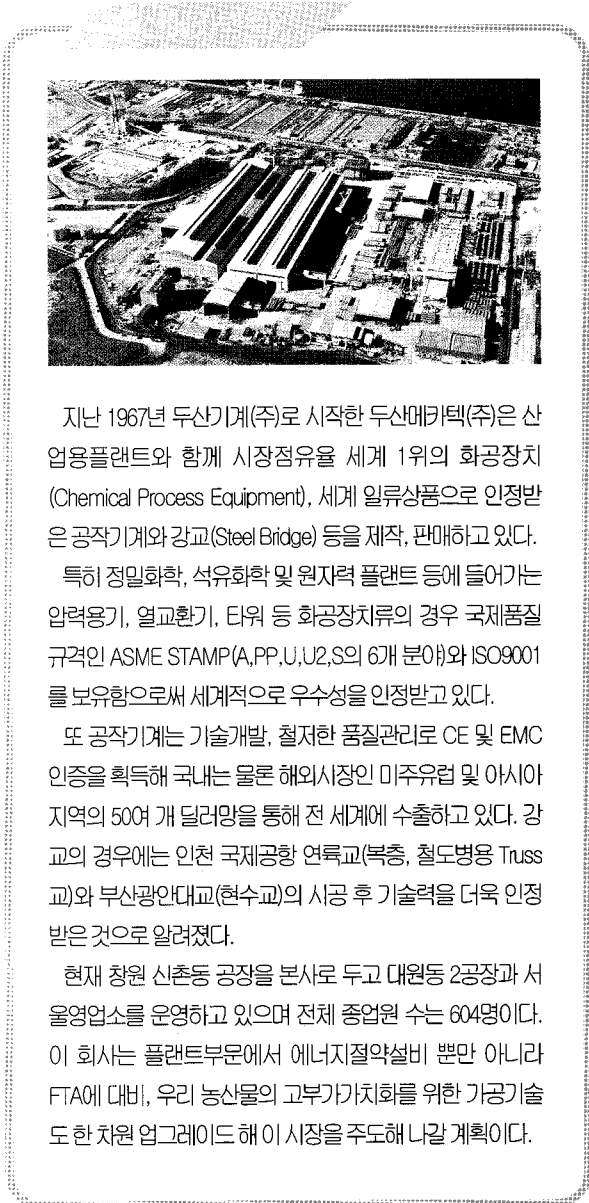
이 회사는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축적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계열사인 두산중공업의 에너지사업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두산중공업은 당치가 큰 대단위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지만 두산메카텍은 3MW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충분히 협력 가능하다는 것. 두산메카텍은 특히 에너지절약설비 중에서도 폐열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열병합발전설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회사가 ESCO를 주력산업으로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플랜트시장의 치열한 가격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다. 서 과장은 “가격경쟁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설 자리가 없을 정도”라며 “저부가가치 플랜트에서 탈피해 에너지절약을 통한 원가절감과 함께 환경까지 개선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15년간 플랜트 설계로 시작해, 시공, 영업까지 플랜트사업 분야를 두루 섭렵한 서 과장은 “에너지다소비산업체들도 에너지소비구조를 바꾸는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

을 피부로 느낀다”며 “한정자원인 에너지를 가치있게 쓰는 기술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기술 그리고 시공능력, 사후관리가 이 시장에서의 성공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과 에너지 때문에 3차대전이 발발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현실감으로 느껴진다”는 서 과장은 “에너지절약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도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을 내놓았으면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



지난 1967년 두산기계(주)로 시작한 두산메카텍(주)은 산업용플랜트와 함께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의 화공장치 (Chemical Process Equipment), 세계 일류상품으로 인정받은 공작기계와 강교(Steel Bridge)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특히 정밀화학, 석유화학 및 원자력 플랜트 등에 들어가는 입력용기, 열교환기, 타워 등 화공장치류의 경우 국제품질 규격인 ASME STAMP(A,PP,U,U2,S의 6개 분야)와 ISO9001를 보유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 공작기계는 기술개발, 철저한 품질관리로 CE 및 EMC 인증을 획득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인 미주유럽 및 아시아 지역의 50여 개 딜러망을 통해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강교의 경우에는 인천 국제공항 연륙교(복층, 철도병용 Truss 교)와 부산광안대교(현수교)의 시공 후 기술력을 더욱 인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창원 신촌동 공장을 본사로 두고 대원동 2공장과 서울영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종업원 수는 604명이다. 이 회사는 플랜트부문에서 에너지절약설비 뿐만 아니라 FTA에 대비, 우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가공기술 또한 차원 업그레이드해 이 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